

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| | | | |
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학과 | | 이름 | 조*기 |
| 파견국가 | 캐나다 | 파견도시 | 벤쿠버 |
| 파견대학 | 랑가라 컬리지 | 파견기간 | 9월 ~ 12월 |
| 귀국여부 | 귀국 | | |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| 구분 | 결과보고(서술형) |
|------|---|
| 파견대학 | <p>랑가라 컬리지는 벤쿠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냈던 홈스테이와는 버스를 두 번 타고 2~30여분 걸리는 위치에 있었고 다운타운까지는 전철 이용 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. 학교의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작습니다. 하지만 시설은 쾌적했습니다. 특히 도서관 시설이 좋았습니다.</p> |
| 수업 | 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랑가라 컬리지의 LEAP은 국제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. 총 8레벨로 나누어져 있었고 저희는 두 세션에 걸쳐 두 레벨을 수강하였습니다. 이 레벨은 오리엔테이션때 치르는 분반시험(읽기, 쓰기, 말하기)을 통해 결정됩니다.</p> <p>LEAP은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캐나다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에세이쓰기를 집중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. 때문에 쓰기를 많이 했습니다.</p> <p>수업방식) 매주 다른 주제로 수업합니다. 월요일마다 그 주에 해당되는 핸드아웃을 주는 데 그것이 교재입니다. 제가 수강했던 레벨에서는 책 읽기가 포함이 되어있어 얇은 책을 3권 구매했었습니다.</p> <p>과제) 과제가 많은 편입니다.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하루에 일정시간을 과제에 할애하도록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2-3시간동안 숙제를 하였습니다. 일주일에 한번씩 읽기, 듣기, 쓰기 시험을 치고 한 세션동안 두 개의 프로젝트를 제출하기 때문에 조금 바쁘다고 느껴집니다.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</p> <p>한 세션이 끝나고 Final test를 치는데 두 번째 세션을 위한 반 편성이 이 시험과 이 전 세션동안 받은 점수로 결정됩니다.</p> |

| | |
|---------|--|
| | <p>강사 및 학생들)</p> <p>선생님들은 모두 좋았습니다. 학생들은 중국인들이 많습니다. 이 외에는 일본,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18~20살로 어린 친구들 입니다.</p> <p>수업준비)</p> <p>출석이나 시키는 것, 숙제를 빠짐없이 하고자 했습니다.</p> |
| 프로그램 운영 | <p><i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</i></p> <p>-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p> <p>IE 오피스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보입니다. 이 부서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합니다. 관련 행사일정에 대한 종이를 나누어주고 공지도 자주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일정을 보고 참여하면 됩니다.</p> |

3. 생활전반

| 구분 | 결과보고(서술형) |
|----|--|
| 날씨 | <p><i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i></p> <p>밴쿠버는 가을,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합니다. 11월까지의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우산은 꼭 챙겨가야 하지만 비가 한국의 소나기처럼 쏟아지듯이 오진 않아서 사람들은 대부분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.</p> <p>9-10월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챙겨가세요.</p> |
| 안전 | <p><i>현지 안전 상황</i></p> <p>오후 9-10시가 되면 대부분 가정집에 불이 꺼지고 거리가 조용해져서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됐습니다. 홈스테이 근처 거리는 어둡긴했지만 이상한 사람이나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늦은 시간에는 언제나 조심히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</p> |

| | |
|----|---|
| 숙소 | 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#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기숙사 이름,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제가 지낸 홈스테이 가정은 필리피노 가정이었습니다. 집도 크고 쾌적했고 특히 홈스테이 아주머니, 아저씨께서 무척 친절하셔서 편하게 지냈습니다. 제가 지낸 가정의 규칙은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, 요리나 베이킹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었고 친구(여자만)들은 데려올 수 있지만 슬립오버는 되지 않는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. 제 방 청소는 아주머니께서 해주셨었습니다.</p> <p>배정을 받으면 미리 연락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배정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서 이불이나 세탁 세제에 대해 물어보았고 픽업에 관련해서도 메일로 연락 받았었습니다.</p> |
| 식사 | <p>학교 Meal Plan () 학교식당 개별이용 () 홈스테이 (#) 외부식당 () 직접 요리 () 기타 ()</p> <p>아침, 점심, 저녁 값을 포함한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. 필리핀 가정이라 그런지 쌀이 들어간 음식도 자주 먹었습니다. 특히 점심 도시락을 잘 싸주신 편이라서 불만이 없이 지냈습니다. 가끔씩 저녁식사는 밖에서 먹었습니다.</p> |
| 교통 | <p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p> <p>학교와 홈스테이 간 거리가 걷기는 멀고 버스타기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. 저는 Monthly Pass(1존의 경우 한 달에 \$98를 내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표)를 구매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. 하지만 2016년부터 이 패스권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.</p> <p>밴쿠버는 교통이 편리합니다.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면 되고 모르는 곳에 갈 때는 구글 맵 검색하시면 다 갈 수 있을 거예요.</p> |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| 항목 | 비용 | 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 |
|--------|---|---|
| 항공료 | 왕복 78만원 | 8월 30일 출발/ 12월 30일, 일본 경유/ ANA항공 5월에 구매 |
| Fees | | |
| 보험료 | 106,320 원 |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 구매 (KB 해외장기체류보험) |
| 숙소 | 홈스테이 비용 - 두 달치 & 픽업비 미리 냄 - 나머지 두 달치 C\$1600 (80X2) | |
| 식비 | 식비 홈스테이에 포함되어 있음 | |
| 교통비 | C\$392 (98 X 4) | |
| 책값 | C\$ 30 (수업용 책 3권) | 교재비는 없었습니다. |
| 핸드폰 요금 | 15000원 (유심칩) C\$ 154 (45 X 3 + 19) | 유심칩은 공동구매 했음 (FIDO) 45요금제 사용했습니다.(공동구매 경우 4달째부터 할인금액 적용되어 마지막 달에는 만 구 천원 정도 냈습니다. |
| 용돈 | 140 ~ 150만원 | 한 달 용돈 3~40만원 정도 받았음 쇼핑, 외식, 커피값 등으로 사용 |
| 여행비 | 210만원 | 개인적인 여행비용 세션동안 록키산맥, 빅토리아 여행과 세션 후 벤쿠버 & 시애틀 여행 하였음 |
| 합계 | 약 650만원 | |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
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것들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챙겨갔었는데 드럭스토어 같은 곳에서 할인을 자주 했습니다. 짐이 무겁다면 가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문구용품이 비싸니 미리 충분히 준비해가세요. 공부하러 간다고 편안 옷들만 챙겨가는데 예쁜 옷 한 벌씩 챙겨가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네 달 동안 살아보았다는 것 자체로도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. 저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기에 이 교환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. 운이 좋게도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버스를 매일 타기 때문에 버스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다양한 나라의 출신들이었고 여자 운전수도 참 많았습니다.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한국과 비교해보니 다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터번을 쓴 여학생과 처음 대화를 했을 때도 기억이 남습니다.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여성이고 어머니이고 활기찬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.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사회에서 보고 느끼고 나니 저 또한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.

캐나다에 있을 때는 네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오자 매우 시원섭섭했습니다. 조금 더 용기내볼걸, 조금 더 많이 해볼걸 하는 후회도 남는 한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영어라는 언어에 좀 더 친숙해졌고 나의 시야가 넓어짐에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

저는 졸업 후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길 원합니다. 캐나다 교환학생을 통해 배우고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를 잘 흡수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또한 캐나다에서의 경험들이 이런 저의 바램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것도 확신합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홈스테이 방 사진



학교가 있는 49번 ST



Thanksgiving day dinner



Victoria island 여행



캐나다 도로



록키여행
(일본학생들과)